

경남지역 일부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성미경^{1*} · 강용주² · 권선화³ · 이지영⁴ · 송혜정³ · 정미경⁴ · 진미영⁵ · 구효진³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²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³마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⁴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⁵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f Some Dental Hygienists in Gyeongnam Province

Mi-Gyung Seong^{1*}, Yong-Ju Kang², Sun-Hwa Kwon², Ji-Young Lee⁴,
Hye-Jeong Song², Mi-Kyoung Jeong⁴, Mi-Young Jin⁵, Hyo-Jin Goo²

¹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Jin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⁴Dept. of Dental Hygiene, Jin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⁵Dept. of Dental Hygiene, Daeh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in dental hygieni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384 participants in continuing educatio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18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Gyeongsangnam-do Conference.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12.0.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agency by working institutions and the main work by experience were analyzed with the chi-square test.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post-tested using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fter a t-test and ANOVA.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In terms of continuing education, clinical work (latest technology) showed the highest distribution in terms of desired education. The highest scoring reason for attending continuing education was legal certification. The highest scoring reason for not attending was economic burden. On-line education was preferred over off-line educ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overall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contents, and methods among dental hygienists with degrees higher than a master's degree, and the work experienc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in subjects with more than 16 years of education ($p < 0.01$, $p < 0.001$).

Conclusions: In order to raise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continuing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 plan for futur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epared.

Keywords Continuing education recognition,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Dental hygienists

Received on Feb 18, 2020. Revised on Mar 13, 2020. Accepted on Mar 13, 2020.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gseong@masan.ac.kr)

I. 서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증가로 건강 기대수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구강보건 분야의 건강 치아 기대수명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서비스 증대 및 질적이고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과 능력 향상의 요구는 면허

를 유지하고 계속교육 및 보수교육의 필요성 증가로 이어진다. 보수교육의 의미는 취업이후 해당 직업의 핵심기술이 빠르게 변화·발전되고 있는 속에서 재직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조직에서 종사자로서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개발될 필요가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계속전문교육[1]으로, 산업현장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배우는 교육훈련[2]이다. 또한 급변하는 최신 의료 환경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평생교육제도[3]라고도 하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전문능력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3].

4차 산업혁명에 급격한 현대의학의 기술 발전 및 치과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 협조 및 경영관리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보건의료인력이다[4]. 치과위생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배출되지만 기본교육과정 이수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최신 치과 의료 환경과 기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치과 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 보수교육은 보건·의료기관 등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와 1년 이상 휴직한 보건의료 인력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하여 의무화 되어 있다[5]. 또한 보수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1년 11월 2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1월 23일부터 도입 되었다[6].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2조 3항에 따르면 ‘면허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수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보수교육에 대한 낮은 이수율을 보였으며[7], 2014년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뚜렷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어 그 의미마저 무의미해지거나, 관련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보수교육은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참여도가 증대되었지만 의무적인 참여를 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대상자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8]. 그러므로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신지식 및 기술 교육으로 자신의 직무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의 실태[5,9-10]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11-13]가 다수 있었다. 계속적으로 시행될 보수교육은 권역별, 지역별 교육대상자의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경남지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남지역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요구도에 맞는 보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수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 중 2018년 3월4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상남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참여자 389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기 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배부된 389부 중 회수된 38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안의 선행연구[5]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근무기관의 특성 4문항,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8문항,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12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9$ 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근무기관의 특성,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 근무기관의 환경 및 근무경력

별 주업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 후 Duncan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6~30세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하 18.1%, 36~40세 16.1%, 31~35세 14.9%, 41~45세 13.5%, 46~50세 6.6%, 51세 이상 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3년제 대학이 7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2년제 대학 12.6%, 4년제 대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ivision	N	%
Age	25 years ≥	63	18.1
	26~30	93	26.7
	31~35	52	14.9
	36~40	56	16.1
	41~45	47	13.5
	46~50	23	6.6
	Over 51 years	14	4.0
Education	Two-year college	44	12.6
	Three-year college	244	70.1
	University	37	10.6
	Master/PhD	23	6.6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49	71.6
	Dental hospital	42	12.1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33	9.5
	Community health center	12	3.4
	The others	12	3.4
Work experience	1 year ≥	15	4.3
	1~3	60	17.2
	3~5	61	17.5
	6~10	60	17.2
	11~15	60	17.2
Marriage	Over 16 years	92	26.4
	Married	161	46.3
Total	Single	187	53.7
		348	100.0

10.6%, 석사이상 6.6%순 이었다. 근무처별로는 치과의원이 71.6%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12.1%,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9.5%, 보건(지)소와 기타 3.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년 17.5%, 1~3년, 6~10년, 11~15년은 모두 17.2%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1년 미만 4.3%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53.7%, 기혼 46.3%로 나타났다.

2. 근무기관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기관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차유무는 있음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없음 37.1%, 기타 7.8% 순이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기타 38.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오후 2시 24.1%, 정오(12시) 15.8%, 휴진 12.1%, 오후 5시 8.9%순 이었으며 오후 7시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6.0%, 41~45시간 39.4%, 46~50시간 10.3%, 50시간 이상 2.9%,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고 주 업무에서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78.7%로 가장 높았으며,

<Table 2> Working plac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ivision	N	%
Day off	Yes	192	55.2
	No	129	37.1
	The others	27	7.8
Saturday working hours	Noon	55	15.8
	p.m. 2	84	24.1
	p.m. 5	31	8.9
	p.m. 7	1	0.3
Weekly working hours	No patients	42	12.1
	The others	135	38.8
	40 hours ≥	160	46.0
	41~45	137	39.4
	46~50	36	10.3
Duty	Over 50 hours	10	2.9
	The others	5	1.4
	Medical assistant	274	78.7
	Preventive work	21	6.0
	Counseling work	26	7.5
Total	Acceptance, Receiving	14	4.0
	Management	3	0.9
	The others	10	2.9
		348	100.0

상담업무 7.5%, 예방적인 업무 6.0%, 접수 및 수납 업무 4.0%. 기타 2.9%, 경영 업무 0.9%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참석의향은 참석 91.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불참

<Table 3> Recognition of continuing education

Division		N	%
Attend	Attend	318	91.4
	No Attendance	30	8.6
Days of preference	Sunday	201	57.8
	Saturday	110	31.6
	Week days	33	9.5
	Public holiday	4	1.1
Place of hope	Hotel	56	16.1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6	1.7
	University auditorium	265	76.1
Hope education	The others	21	6.0
	Clinical work	253	72.7
	Inspire of professionalism	11	3.2
	Medical management	21	6.0
	Public oral health	19	5.5
	Refinement course	24	6.9
Degree of help with continuing education	The others	20	5.7
	Muchful	28	8.0
	Helpful	107	30.7
	Ordinary	174	50.0
Reasons to attend	Unhelpful	36	10.3
	Not at all helpful	3	0.9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90	25.9
	Self-improvement	35	10.1
	Legal sanction	210	60.3
Reasons for absence	Request of boss	3	0.9
	The others	10	2.9
	Economic burden	139	39.9
	Lack of time	52	14.9
	Matter of distance	50	14.4
	Private event first	22	6.3
	Contents dissatisfaction	28	8.0
Type of education	Lack of information	10	2.9
	Lack of necessity	21	6.0
	The others	26	7.5
	Off-line	208	59.8
On-line	140	40.2	
Total		348	100.0

8.6%로 나타났다. 희망요일은 일요일 57.8%로 가장 높았고 토요일 31.6%, 주중 9.5%, 공휴일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장소는 대학강당 및 강의실 76.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호텔 16.1%, 기타 6.0%,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1.7%로 나타났다. 교육희망분야는 임상업무(최신기술) 72.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교양강좌 6.9%, 의료경영 6.0%, 기타 5.7%, 공중구강보건 5.5%, 직업의식고취 3.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의 업무 수행 도움정도는 보통 50.0%, 도움 됨 30.7%, 도움 안됨 10.3%, 많이 도움 됨 8.0%, 전혀 도움 안됨 0.9% 순으로 나타났다. 참석이유는 법적인 제재(의무)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 25.9%, 자기계발 10.1%, 기타 2.9%, 상사의 요구 0.9% 순이었고, 불참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39.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 14.9%, 거리문제 14.4%, 교육내용과 주제 불만족 8.0%, 사적인 행사 우선 6.3%, 보수교육 필요성 못 느낌 6.0% 순이며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형 선호도는 현장보수교육 5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보수교육 40.2%로 나타났다.

4.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연차 유무에서 종합병원·대학병원, 보건(지)소는 100%, 치과병원 86.7% 치과의원은 42.2%, 기타 기관은 50%에서 연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p<0.001$). 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진이 종합병원·대학병원 42.2%, 보건(지)소 75%로 나타났고, 치과병원은 오후 5시까지와 기타 시간이 42.9%, 치과의원은 오후 2시까지 32.5%와 기타 40.2%로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p<0.001$). 1주간 근무시간으로 치과의원은 41~45시간 43%, 치과병원은 40시간이하 52.4%, 종합병원·대학병원 48.5%, 보건(지)소는 100%로 나타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주요 업무에서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치과의원 84.7%, 치과병원 64.3%, 종합병원·대학병원 93.9%, 기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지)소는 예방적인 업무가 75%로 가장 많아 주 업무에 차이가 있었다($p<0.001$).

5.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는 <Table 5>와 같다.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는 근무경력이 3~5년 21.9%, 1~3년 21.5%로 가장 많았고, 예방적인 업무는 16년 이상 52.4%와 11~15년 33.3%, 상담업무에서 16년 이상 69.2%, 11~15년 23.1%, 리셉션 업무는 16년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working institutions.

Divis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Community health center	The others	Total	p-value*
Day off	Yes	105(42.2)	36(86.7)	33(100)	12(100)	6(50)	192(55.2)	<0.001
	No	121(48.6)	6(14.3)	(0)	(0)	2(16.7)	129(37.1)	
	The others	23(9.2)	0(0)	(0)	(0)	4(33.3)	27(7.8)	
Saturday working hours	Noon	37(14.9)	4(9.5)	9(27.3)	1(8.3)	4(33.3)	55(15.8)	<0.001
	p.m. 2	81(32.5)	2(4.8)	1(3.0)	0(0)	0(0)	84(24.1)	
	p.m.5	12(4.8)	18(42.9)	0(0)	0(0)	1(8.3)	31(8.9)	
	p.m. 7	1(0.4)	0(0)	0(0)	0(0)	0(0)	1(0.3)	
	No patients	18(7.2)	0(0)	14(42.2)	9(75.0)	1(8.3)	42(12.1)	
	The others	100(40.2)	18(42.9)	9(27.3)	2(16.7)	6(50.0)	135(38.8)	
Weekly working hours	40 hours ≥	101(40.6)	22(52.4)	16(48.5)	12(100%)	9(75.0)	160(46.0)	<0.001
	41~45	107(43.0)	18(42.9)	11(33.3)	0(0)	1(8.3)	137(39.4)	
	46~50	28(11.2)	2(4.8)	6(18.2)	0(0)	0(0)	36(10.3)	
	Over 50 hours	10(4.0)	0(0)	0(0)	0(0)	0(0)	10(12.9)	
	The others	3(1.2)	0(0)	0(0)	0(0)	2(16.7)	5(1.4)	
Main work	Medical assistant	211(84.7)	27(64.3)	31(93.9)	0(0)	5(41.7)	274(78.7)	<0.001
	Preventive work	4(1.6)	6(14.3)	1(3.0)	9(75.0)	1(8.3)	21(6.0)	
	Counseling work	21(8.4)	4(9.5)	1(3.0)	0(0)	0(0)	26(7.5)	
	Acceptance, Receiving	11(4.4)	3(7.1)	0(0)	0(0)	0(0)	14(4.0)	
	Management	1(0.4)	2(4.8)	0(0)	0(0)	0(0)	3(0.9)	
	The others	1(0.4)	0(0)	0(0)	3(25.0)	6(50.0)	10(2.9)	

*by chi-square test

<Table 5> Main work by work experience

Division	1year ≥	1~3	3~5	6~10	11~15	Over 16 years	Total	p-value*
Medical Assistant	14(5.1)	59(21.5)	60(21.9)	54(19.7)	42(15.3)	45(16.4)	274(78.7)	<0.001
Preventive work	1(4.8)	0(0)	0(0)	2(9.5)	7(33.3)	11(52.4)	21(6.0)	
Counseling work	0(0)	0(0)	0(0)	2(7.7)	6(23.1)	18(69.2)	26(7.5)	
Acceptance, Receiving	0(0)	1(7.1)	1(7.1)	2(14.3)	3(21.4)	7(50.0)	14(4.0)	
Management	0(0)	0(0)	0(0)	0(0)	1(33.3)	2(66.7)	3(0.9)	
The others	0(0)	0(0)	0(0)	0(0)	1(10.0)	9(90.0)	10(2.9)	
Total	15(4.3)	60(17.2)	61(17.5)	60(17.2)	60(17.2)	92(26.4)	348(100)	

*by chi-square test

이상 50%, 11~15년 21.4%, 경영업무에서도 16년 이상 66.7%, 11~15년 33.3%으로 나타나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p<0.001).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학력별로는 석사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전반적인 만족도(p<0.01), 교육환경(p<0.001), 교육내용 및 방법(p<0.001)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근무처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기타(연구소, 대학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건(지)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Table 6>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Satisfaction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M±SD	t(p)	M±SD	t(p)	M±SD	t(p)	
Education	Two-year college	3.59±0.78 ^a	3.66±0.63 ^a		3.61±0.64 ^a		
	Three-year college	3.61±0.73 ^a	5.06	3.56±0.67 ^a	6.22	3.39±0.72 ^a	
	University	3.86±0.82 ^b	(0.002)**	3.84±0.77 ^a	(0.000)***	3.66±0.92 ^a	(0.000)***
	Over master	4.17±0.71 ^b		4.14±0.76 ^b		4.05±0.79 ^b	
Working institutions	Dental clinic	3.64±0.73		3.59±0.64 ^a		3.42±0.68 ^a	
	Dental hospital	3.55±0.77		3.63±0.76 ^a		3.44±0.79 ^a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3.88±0.96	2.31	3.69±0.93 ^a	3.02	3.58±1.08 ^a	5.77
	Community health center	3.67±0.78	(0.058)	3.95±0.69 ^b	(0.018)*	4.22±0.62 ^b	(0.000)***
	The others	4.17±0.58		4.22±0.61 ^b		4.11±0.73 ^b	
Work experience	1 year ≥	3.73±0.96 ^{ab}		3.88±0.77 ^b		3.66±0.92 ^{bc}	
	1~3	3.55±0.81 ^a		3.47±0.67 ^a		3.35±0.78 ^{ab}	
	3~5	3.52±0.67 ^a	3.66	3.47±0.64 ^a	6.11	3.24±0.68 ^a	8.80
	6~10	3.47±0.65 ^a	(0.003)**	3.42±0.67 ^a	(0.000)***	3.17±0.69 ^a	(0.000)***
	11~15	3.77±0.79 ^{ab}		3.78±0.68 ^b		3.68±0.72 ^{bc}	
	Over 16 years	3.90±0.74 ^c		3.88±0.67 ^b		3.81±0.68 ^c	

p<0.01, * p<0.001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근무처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전반적인 보수교육 만족도가 높았고(p<0.01), 교육환경의 만족도는 근무경력 1년 미만과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들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근무경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IV. 고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문 인력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일 수 있도록 유지,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인력의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는 보수교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미국간호연맹(NLN)에서 강조하고 있다[14]. 보수교육은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에 순기능

이 되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가 많고 교육자체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무적 이수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직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회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 높은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연령은 26~30세가 26.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3년제 대학이 7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71.6%가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는 1~5년까지가 34.7%로 가장 많았고 6~15년은 34.4%, 16년 이상 26.4%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53.7%로 나타났다. 박 등의 연구[11]에서 25세 이하 36.5%, 26세~30세가 33.2%로 많았고, 근무 경력이 3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75.3%를 차지하는 것과 다르게 경남지역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년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주체를 어느 년차에 맞추어야 할지가 고민이 될 수 있고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분모를 끌어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근무기관의 특성 중 연차가 있는 경우가 55.2%로 가장 높았고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6.0%로 나타났으며, 주 업무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78.7%로 가장 높았다. 근무처가 개인치과외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주 업무가 여전히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높았으나 연차도 있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로 질적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향후 보수교육 참석의향은 참석 91.4%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희망요일은 일요일 57.8%였으며 희망 장소는 대학 강당 및 강의실이 76.1%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희망 분야는 임상업무(최신기술) 72.7%로 가장 높았고, 보수교육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에서는 보통 50.0%, 도움 됨 30.7%, 많이 도움 됨 8.0%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참석이유는 법적인 제재(의무)가 60.3%로 가장 높았고 불참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형 선호도는 현장 보수교육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로는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 좋고 장소로는 대여비가 저렴한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희망 분야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임상적 기술을 선호하고 교육선호도는 현장보수교육이 조금 더 높았다. 참석이유는 의무 보수교육으로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불참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3,13]에서 참석이유가 재교육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6년에 보고된 박 등의 연구[11]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면허신고제 도입 이후 보수교육 점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신고제 시행에 여부가 보수교육 참석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불참이유는 이와 이[13]는 개인적인 사정과 홍보부족이라는 점과, 이와 박[3]의 시간 부족이라는 점과 상이한 결과이나 모두 보수교육을 들어야겠다는 필요성 부재에 의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사료된다.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는 모든 년차에서 고루 많았고, 예방적인 업무는 16년 이상 52.4%, 상담 업무에서 16년 이상 69.2%, 리셉션 업무는 16년 이상 50%와 경영업무에서도 16년 이상 66.7%로 예방, 상담, 리셉션, 경영업무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별로는 석사이상에서, 근무처별로는 연구소, 대학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전반적인 보수교육 만족도가 높았다($p<0.01$). 16년 이상

의 치과위생사에서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아 근무경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저 연차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11,1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이와 박의 연구[3]에서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보수교육 미 이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보수교육 시행기관에서는 보수교육 요일, 내용, 장소, 인식,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도 의료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의료 보수교육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5].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보수교육 참여자의 현직무 및 직무능력과의 관련성 그리고 직업적 자긍심 고취, 치과임상의 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주제 선정은 해마다 요구도를 조사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16], 요구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개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일부 지역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보수교육 만족도에 따른 강의 질에 관한 내용은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 시에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교육 요구도에 따라 결과가 제한적이므로 차후 보수교육의 강의 질과 교육자의 강의 피드백을 통한 치과임상에서의 실무에 따른 효율성과 사이버 보수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경남지역 치과위생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인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요구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3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상남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참여자 384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희망분야는 임상업무(최신 기술)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보수교육 참석이유는 법적인 제재(의무)가 가장 높았고 불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형 선호도는 사이버 보수교육보다 현장 보수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2.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에서 연차의 유무와 토요일 근무시간 휴진은 종합병원·대학병원, 보건(지)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간 근무시간으로 40시간이하에서 보건(지)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치과병원이 높게 나타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주요 업무에서 치과 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대학병원은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지)소는 예방적인 업무가 가장 많아 주 업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3.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에서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는 근무경력이 3~5년이 가장 많았고, 예방적인 업무, 리셉션 업무, 경영업무는 16년 이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의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도에서는 학력별로는 석사 이상에서,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들의 전반적 만족도($p<0.01$), 교육환경($p<0.001$), 교육내용 및 방법($p<0.001$)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과 근무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경력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도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Ferguson G: Reconceptualizing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planning, great urban school, learning together builds strong communities 2006.
2. Kim MS, Ju IJ, Kim DK, O HJ: Analysis on the Status of Conservative Education for Licensed National Qualification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2.
3. Lee SH, Park IS: Comparison of the State of Supplementary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Relevant Need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010, 12(2):109-126.
4. Kwon HS, Kang HK, Kwon HM et al: Oral health education. 4th ed. Seoul, Chungkumoonhwasa, 11-34, 2016.
5. Ahn SY: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about maintenance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2005.
6. Park HS, Choi HS: The study on the of empowerment of dental Hygienists and job satisfaction immersion in the organizat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1):175-81, 2005.
7.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09>
8. Jung JY: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of continuing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2014.
9. Jung JY, Kim KM, Cho MS et al: A Study on the State of Inservice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Their Relevant Awarenes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7(1):73-89, 2007.
10. Yoo JS, Ahn GS. Improvement of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Dental Research 47(1):71-82, 2000.
11. Park JE, Kang BW, Kim YS, Lee SM: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4):499-506, 2016. DOI: 10.13065/jksdh.2016.16.04.499
12. Park IS, Lee SH: A study on satisfaction level with supplementary education among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2):159-167, 2011.
13. Lee SM, Lee EK: A study on continuing education and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11(2):197-207, 2009.
14. Cabanor RP, Denofa JR. Design and administration of a continuing policy. J Med Technol 47(9):715-723, 1981.
15. Park KH: The role of medical record technician and survey of continuing education need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Yongin, Seoul, 1999.
16. Cheon SH: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Requests for; Continuing Education for Nurses in Medium Sized Hospitals and Change of Nursing Competency after Continuing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University, Jinju, 2010.